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4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황
5~7면

글로벌 학생 운동의
탄생
8~9면

라인 사태
10면

2차 단체행동 준비 중인
삼성전자노조
13면



글로벌 학생운동의 탄생

한국 대학생들도

싸우고 있다

매스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는 진실

관련 기사 2, 3, 8, 9, 16면



대학에서 농성과 시위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였다. 13일 서울시립대 텐트 농성장 학생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시위 시작되다

고려대 (가나다 순)

고려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과 연좌 농성이 진행됐다.

5월 14일 오후 1시 고려대학교 정경대 후문에 서른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다. 팔레스타인인 학생들이 함께해 집회에 의의를 더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들뜬 표정으로 서로에게 반가움을 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에 집회를 준비한 학생들도 놀라워했다.

한 학생은 주말에 열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집회에 참가한 뒤 연대 운동 소식을 찾아보고 있었다면서, 오늘 학내 집회가 열려서 정말 반갑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러 학생들이 학내 포스터를 보고 친구의 소개로 집회에 참가했다고 한다. 전날 서울대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가 고려대에서 시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온 학생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리플렛을 건네고, 팔레스타인 지지 버튼, 스티커 등을 나눠주면서 동료 학생들에게 관심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고, 손팻말을 머리 높이 들면서 힘

차게 구호를 외쳤다. 행진에 합류하거나 대열에 환호를 보내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참가자들은 더욱 고무됐다. 행진 후 민주광장 텐트 농성장에 이르자 규모는 마흔 명을 훌쩍 넘었다.

학생들은 정리 집회를 한 뒤, 함께 하루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주변을 지나는 학생들에게 농성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팔레스타인의 해방까지 우리는 멈추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환호했다.

김지윤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

서울시립대

5월 13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캠퍼스에 팔레스타인 연대 텐트를 차리고 하루 연좌 농성을 했다.

여러 내외국인 학생들이 텐트를 보고 반가워했다.

텐트 풍경은 국제적 팔레스타인 연대 물결의 축소판을 보여 주는 듯했다. 한국인 학생들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 독일인, 튀니지계 프랑스인, 모로코인 학생들이 함께 어울렸다.

텐트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학생들은 지지 메시지를 남기고, 스티커 등을 받아 갔다. 리플렛을 유심히 읽으며 친구들과 대화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점심 시간에는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프랑스 유학생 루 씨는 이렇게 말했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시작된 시위는 프랑스 등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앙스포 파리 캠퍼스나 제가 다니는 시앙스포 릴 캠퍼스 등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이 캠퍼스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권 존중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탄압 규모를 생각

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인 유학생 나리만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전쟁을 끝내고, 점령군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서방의 이중잣대를 반대하려고 모였습니다.

“가자지구의 70퍼센트를 파괴한 것이 과연 하마스를 파괴하기 위한 것일까요?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를 강요하려는 목적이 아닌가요?”

“그러나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일어난 일, 즉 원주민을 모두 살해하고 인종 청소를 벌인 일은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애를 중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캠퍼스 행진을 했다.

학생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라파흐 지상전을 규탄하고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에 연대하고 있음을 알렸다.

행진을 촬영하거나 팻말을 받아 함께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히잡을 쓴 학생이 행진 대열을 찍으며



연세대 백양로의 팔레스타인 연대 텐트에 학생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다



지지 메시지를 쓰는 서울시립대 학생들

연세대

5월 14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한가운데에 팔레스타인 연대 텐트가 차려졌다. 연세대 학생들이 지난주 힘찬 집회와 행진을 한 데 이어 하루 연좌 농성에 나선 것이다.

다양한 국적의 내외국인 학생들이 케피어를 두르고 모여 팔레스타인 깃발과 현수막 등으로 텐트를 꾸몄다.

학생들은 약식 집회로 연좌 농성의 시작을 알렸다.

미국인 유학생 엘리사 씨는 인종 학살에 맞선 행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저는 수십 년 후 미래 세대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인종 학살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인했는지 의아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래가 꼭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학살을 끝장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함께합시다. 더 늦기 전에 이 학살을 끝장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어서 라파흐 국경에 맞닿아 있는 이집트에서 온 유학생 모하메드 씨가 메가폰을 잡았다.

“역사를 돌아보면 학생들은 종종 불

의에 맞선 도덕적 나침반 구실을 해 왔습니다. 베트남 전쟁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까지, 학생들의 행동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학생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실시간으로 벌이고 미국이 후원하는 대규모 인종 학살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더욱 참혹한 학살을 낳을 이스라엘의 라파흐 침공을 강력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파흐 주민들에겐 이스라엘의 공습과 탱크 포탄으로부터 몸을 숨길 변변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라파흐 침공 첫날, 이스라엘은 라파흐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고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전 세계 학생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경찰과 시온주의 깡패들이 학생들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 백인, 흑인, 아시아인 가리지 않고 2000명 넘는 학생들이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시온주의자들이 자유롭게 활개치며 페퍼 스프레이, 폭죽, 몽둥이, 칼로 학생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하고 위선적인 제국주의 시온주의 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함께합시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일수록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라파흐를 보고 있습니다. 인종 학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집회 내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고, 응원을 보냈다. 멀리서 다가와 리플렛을 받아 가서 친구들과 함께 읽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세계 각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나선 대학생들이 외치는 구호, “We will not stop, we will not rest!(우리는 멈추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다!)”를 우렁차게 외친 뒤 연세대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백양로에서 본격적으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지나는 많은 학생들이 텐트에 관심을 보이며 사진을 찍거나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지지 메시지를 받는 부스에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소식을 들은 이집트인 난민이 텐트를 찾아와 학생들을 격려하고 연좌 농성에 함께했다.

저녁에는 신촌역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참가자들이 연세대 학생들을 지지 방문했다.

이재혁

※ 서울대 농성 소식은 16면을 보시오.

이재혁·강혜령

대학생 시위 폭력 탄압하는 미국은 민주주의 운운할 자격 없다

바이든 정부가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 운동을 강경하게 탄압하고 있다. 2주 만에 최소 108개 대학에서 2847명이 체포됐다(〈뉴욕 타임스〉, 4월 18일~5월 3일 추산).

대학가에 대(對)테러 부대가 투입돼 비무장 시위대에 고무탄을 — 최소 한 번은 실탄도 — 쏘고, 저격수가 배치되고, 장갑차와 불도저가 천막을 밀어 버렸다.

이는 다수 대중의 의견을 억누르는 것이다. 5월 11일 자 〈뉴욕 포스트〉에 보도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 86퍼센트가 시위를 지지한다. 학생 바깥으로 대상을 확대해 물어도 시위 지지(45퍼센트)가 반대(24퍼센트)의 곱절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현 상황에서 기시감을 느낀다.

미국 정부가 대중의 항의를 경찰 폭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60년대에 미국 민주당 정부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 베트남 전쟁을 확대하고 이에 항의한 반전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

미국에서 경찰 등이 보유한 시위 진압 병력은 매년 최소 8만 회 투입된다(〈워싱턴 포스트〉).

2020년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경찰은 5개월 동안 시위대 19명을 살해하고 1만 7000명 넘게 체포했다. 그 운동이 경찰의 흑인 살해에 항의해 벌어진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미국은 경찰이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쏘는 몇 안 되는 나라의 하나다.(발사형 최루탄은 1990년대 이래로 몇몇 국제 협약에 따라 전쟁터에서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어느 나라에서든 경찰은 체제의 원활한 운영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탄압하려 하지만, 미국 경찰은 특별히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경찰을 군용 무기로 무장시켰다. 미국이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급증한 군용 무기가 경찰로 쏟아져 들어가, 경찰의 중화기 사용이 폭증했다.

이런 중무장은 대중의 불만과 항의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다.

애초 경찰 중무장의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흑인 평등권 운동 조직들을 공격하고 흑인 지역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경찰이 휘두르는 폭력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과 무슬림, 유색인종들을 향한다. 이 집단의 체포·기소·수감률은 모두 불비례하게 높다.

가진 것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의 사는 억눌리기 일쑤다.

미국 사회의 극심한 빈부 격차는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리의 극심한 격차로도 나타난다.(사실 커다란 불평등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부의 압도적 부분이 사회 최상층부에 집중돼 있는 사회가 민주적일 수는 없다.)

불평등

미국은 선거에서조차 1인 1표와 다수결도 보장하지 않는다. 전체 유권자 중 소수만 득표했다 해도 국가가 지역별로 할당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면 당선한다.(미국 상원 의석은 아예 인구 비례와 무관하게 배정돼 있다.)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 46명 중 다섯 명이 경쟁 후보보다 더 적게 득표하고도 집권했다(트럼프도 그중 하나).

게다가 투표 행위에 부여되는 각종 까다로운 조건들과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구획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체계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낸다.

이런 제도는 미국 독립 혁명 때 그 혁명을 주도한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세울 때부터 주도면밀하게 구축한 것이다. 혁명을 수행한 대중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비민주성을 더한층 강화했다. 미국 역사가 고(故) 하워드 진은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고 자처할 때조차 고집스럽게 인종차별과 인종 분리를 고수했다”고 꼬집었다.

냉전기에 미국은 소련과의 제국주의



미국 지배자들은 제국주의적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을 민주주의에 맡길 생각이 없다.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대에 최루액을 뿌리는 미국 경찰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자신의 행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거리낌 없이 무시했다. 미국은 곳곳에서 독재자를 지원하고 우익 쿠데타와 내전을 사주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국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는 데서 민주주의 기치를 내세우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왕가 같은 동맹자나 인도의 극우 총리 모디 같은 동맹자들의 비민주성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위기

그런데 최근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도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생계비 위기와 기후 재난 속에서 바이든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등 차별 강화 공격에 전혀 실질적으로 맞서지 않아 왔다.

그러면서도 전쟁과 제국주의 갈등 격화에는 매진해 왔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두 전쟁(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모두의 최대 물주다.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가 깊이 고였다. ‘우리를 지켜 주지도 않고 우리 의사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 게 무슨 민주주의인가?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 모양이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대체 무슨 소용인가?’

이런 반발은 왼쪽에서도 불거졌지만(2011년 광장 점거 운동에서 나온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 구호가 이를 잘 드러냈다), 특히 오른쪽에서도 불거졌다. 특히 트럼프는 대중적 불만의 대변자를 참칭하며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임 기간과 그 후에도 위험천만한 극우 운동을 강화했다.

그러나 현재 정치의 중심이 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바이든 정부와 이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 국가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폭로하고 왼쪽에서 그 민주주의적 정당화에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당선되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대를 전원 국외 추방하겠다”고 떠들어 대는 트럼프 같은 자들이 도저히 참칭할 수 없는 항의다.

일각에서는 캠퍼스 점거 운동으로 양극화되는 정세 때문에 트럼프가 득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바이든에 대한 대중의 실망으로 이미 그 전부터 부상하고 있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 운동이 전개되는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런 항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잠재력이 있다. 권력층에 이롭고 인종 학살과 제국주의 쟁투를 밀어붙이는 이 체제를 전복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함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김준호

용어설명

통킹만 사건

1964년 6월, 당시 미국 민주당 대통령 린든 존슨은 북베트남 어뢰정이 통킹만에서 미 해군 전함 매덕스호를 두 차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전쟁을 본격화했지만, 이후 이는 조작으로 판명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의 딜레마: 이스라엘 지원과 미국 위신의 손상 사이에서

지난 금요일(5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정회원 가입 지지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대사 길라드 에르단은 연단에서 휴대용 파쇄기로 유엔 현장을 파쇄했다(사진). 그것은 사소한 일로 생떼를 부리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유혈 난자한 광란을 벌이고 있음에도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에르단의 행동은 경멸감의 표현이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고립 속에 느끼는 좌절감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또, 미국이 마침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에르단의 행위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위력에 바치는 찬사인 셈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강력하면서 자신에 의존하는 국가를 중동에 두는 것이 서방 제국주의의 에너지 공급지를 통제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가 바이든 말처럼 “철통” 같을지라도, 그러나 무조건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미국의 계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반항적인 이스라엘 총리를 직접 압박하곤 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56년 벤 구리온[영국·프랑스와 함께 이집트를 침공한 당시 이스라엘 총리]이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병합하려 하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당시 미국 대통령]은 집속탄 공급을 중단하며 [당시 이스라엘 총리로 레바논을 침공한 메나헴 베긴에게 베이루트에서 휴전을 선언하라고 명령했다.

1992년 조지 부시 1세[당시 미국 대통령]는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담보 지원을 중단하며, 그 돈을 불법 정착촌 건설에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이츠하크 샤미르[당시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했다.

지난주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은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 있었다. 바이든과 그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둘 다



유엔에서 생떼 부리는 이스라엘 대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열성적인 시온주의자이고, 베냐민 네타냐후가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인종 학살을 굳건하게 뒷받침해 왔다. 지난 주에도 바이든은 홀로코스트 기념일 연설을 이용해 대학생들의 점거 농성을 유대인 혐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입장이 미국을 위험하게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네타냐후를 압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처음 전해진 것은 지난 화요일에 미국이 1000파운드·2000파운드짜리 폭탄 지원을 “일시 중지”했다는 보도였다. 뒤이어 수요일에는 바이든이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스라엘군이 라파흐에서 전면적인 지상 작전을 벌이면 그런 무기들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그런 폭탄과 그 외에 이스라엘군이 인구 밀집

지역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인해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살해당했다”고 인정했다. 이런 발언은 반복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금요일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이 미국의 무기를 국제인도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서 사용했다고 “평가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보고서는 단서를 잔뜩 달아 놓았고 결국 무기 공급 중단을 권고하지 않는다. 평상시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BBC의 국제 편집장 제레미 보웬마저 이에 분노했다. 보웬은 토요일 채널 4 라디오의 <투데이>에서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언제나 비호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관찰은 이스라엘을 향한 암묵적인 압박을 놓치는 것이다. 네타냐후가 계속 미국 정부를 거스르려 한다면 무기 공급을 끊을 것이라는 압박 말이다.

‘전쟁 신경증’

네타냐후는 계속 큰소리치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라파흐로 더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이스라엘 내부 논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 정부 최상층이 비록 말은 거칠게 하

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악화돼’ 일종의 ‘전쟁 신경증’을 겪고 있고, 막후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신문의 다른 보도는 또 이렇게 전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잘 아는 이스라엘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군이 양국의 관계를 ‘아주 전문적인 손길’을 요구하는 섬세한 화초처럼 다뤘다고 말했다. ‘둘의 동반자 관계는 해마다 조금씩 성장해서 이스라엘군의 토대가 됐다.’ ‘날마다 직면하는 엄연한 현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료들이 서로에 대해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미국 외에는 친구가 없다.’”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권좌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네타냐후와, 그의 내각에 포함된 파시스트들은 이 전쟁을 계속 끌고가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컨대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자들은 이스라엘 사회를 주름잡는 세력인 이스라엘군 수뇌부일 듯하다.

미국의 이해타산은 이스라엘에 불리한 쪽으로 기울었다. 이는 바이든에게 딜레마를 안겨 준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더 징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의 위신은 더 손상될 것이다.

번역 김종환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민주당의 화전양면과 촛불행동

★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 퇴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조처다

★ 누가 왜 ‘청년’을 말하는가?
— 세대론의 정치적 맥락

★ 영화평 <넌 골든,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태>

★ 자본주의는 왜 약물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라파흐 침공으로도 전쟁 목표 달성 못할 네타냐후

김인식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휴전을 거부하고 파괴적인 가자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흐 동부뿐 아니라 중부에도 대피 명령을 내렸다. 라파흐 지상군 공격 전 소개(疏開)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대피를 명령한 알마와시는 결코 “안전한 인도적 구역”이 아니다. 이미 피란민들로 미어터지고 있는 그곳은 폭격이 계속될 뿐 아니라 식량·물 부족도 심각하다.

라파흐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최후의 피난처로 여겨진 곳이다. 이스라엘군은 그런 곳마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5월 7일(이하 현지 시각) 라파흐 검문소를 점령한 뒤 폐쇄했다. 이스라엘은 이 통로를 이용해 하마스가 무기를 밀반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목적은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절실한 구호품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휴전은 이스라엘의 계획 실패를 뜻한다고 보는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은 휴전 협상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대계 이스라엘인의 압도 다수도 라파흐 침공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라파흐를 전면 지상 공격하면 이스라엘의 생존 포로들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5월 13일 이스라엘 현충일 행사에서 인질 가족들



사진 출처 UNRWA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라파흐 공격이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

은 정부 각료들에게 야유를 퍼붓고 이를 제지하려는 사람들과 난투극을 벌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라파흐 침공으로 하마스 제거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5월 12일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철수했던 가자지구 북부의 자발리야 난민촌을 탱크로 다시 밀고 들어갔다. 전투태세를 가다듬은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몰아낸 가자 지역에서 하마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을 목격하고 있다. … [이스라엘이 승리한 곳에 나타나는] 공백이 … 혼란, 무정부 상태, 궁극적으로는 다시 하마스에 의해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블링컨은 수많은 피해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작전 “성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백지수표

그래서 바이든은 라파흐 전면전에는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대학생들의 반란과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바이든 정부를 강타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스라엘군의 라파

흐 지상 전면전 개시를 앞두고 이스라엘과 만만찮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조 바이든은 5월 8일 이렇게 말했다. “난 이스라엘군이 라파흐에 진입하면 라파흐 등 도시들을 다루는 데 지금까지 써온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교활하게도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사용한 무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군이 이미 라파흐를 일부 침공했는데도 무기 지원 중단의 “레드 라인”(금지선)을 예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마냥 백지수표를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미 국무부는 5월 10일 의회에 다음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 출처 Jim Weiss

이집트 독재자 엘시시

라파흐 침공의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이집트 독재정권

이집트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군의 라파흐 검문소 점령 직후에 내린 결정이다.

이스라엘군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필라델피아 회랑(살라딘 축)으로 진격했다.

필라델피아 회랑은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14킬로미터에 이르는 비무장 지대다.

필라델피아 회랑은 1978년 미국이 중재한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5년 필라델피아 의정서를 통해 개정됐다. 필라델피아는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붙인 암호명이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2005년 이후, 이집트 측이 검문소 일대를 순찰해 왔다. 이집트 국경수비대의 임무는 이스라엘군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가자지구 국경인 이집트 쪽 통로를 막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곳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필라델피아 회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자지구의] 남단은 우리 손에 있어야만 한다. 폐쇄돼야 한다. 다른 어떤 합의도 우리가 원하는 비무장화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라파흐를 하마스의 “최후 요새”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라파흐 점령은 이집트-이스라엘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아랍에미리트·모로코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맺고 있는 관계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결과물들이다.



사진 출처: Dane Krauthamer (블라카)

“학살자 조!” 미국 대학생들의 반란은 바이든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군이 … [미국산] 무기를 국제 인도주의 법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무기 사용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려였다. 미국은 무기 원조 중단이 이란의 군사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까 봐 우려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요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지만,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작전에 사용되는 특정 무기들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무기는 여전히 이스라엘로 가고 있으며, 그들은 필요한 것의 대부분을 얻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 이스라엘군이 라파흐를 전면적으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무기 선적 1건을 보류했다. 10월 7일 공격 이래 미국은 이스라엘에 100건 이상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었다.

요컨대, 바이든 정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철통같이” 지지하지만 이전처럼 백지수표를 주지는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집트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디딜 수 있는 초석과 같은 국가다”(이스라엘 전 외교부 국장 알론 리엘).

그런 이집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참여한 것은 이스라엘에 외교적 타격이다.

이집트의 엘시시 정권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라파흐 공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이집트로 탈출하고, 그것이 이집트 국내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까 봐 두려워한다.

이집트 국영 라디오 방송 알샤르크

알아우사트의 부편집자 살라흐 고마아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폭력 위협을 가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시나이반도 쪽으로 이주시키는 게 회랑 점령의 목적이라고 말해 왔다. … 국가안보국 책임자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이집트가 이 축의 재점령을 레드 라인으로 간주하는 이유다.”(프랑스의 국제 보도 전문 채널 프랑스24, 2월 14일 자)

엘시시 정권은 몇 주 전부터 시나이반도 동북부 지역에 약 40대의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해 놓고 있다.

하마스의 두 날개 전략

하마스는 현재 라파흐에 일부 진입한 이스라엘군에 맞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도 이스라엘군과 맞붙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하마스는 아랍연맹과 이슬람협력기구에 이스라엘군의 라파흐 침공에 대응하는 조처들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무장 투쟁과 외교에 의한 독립 추구 노선은 이스라엘의 폭력에 맞서는 하마스의 두 날개 전략이다.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인의 무장 투쟁은 영웅적이고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무장 투쟁만으로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종식시킬 만한 상황에 다가간 적은 없다.

특히, 무장 투쟁의 목적이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친서방아랍 국가들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하마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을 신생 팔레스타인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아랍 국가의 지배자들이 중동을 지배하는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방 제국주의에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미국과 논의하는 “전후 협상”만 봐도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제안에 따르면, 미국과 협력하는 아랍-이스라엘 동맹은 황폐해진 영토를 재개발하고 교육 시스템을 점점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자 태생의 지도자들을 임명할 것이다. 그 동맹은 7~10년 후 가자 주민들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점령하 서안지구를 통치할 통합 팔레스타인 당국에 흡수될지 여부를 투표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 그기간 내내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에서 주둔할 수 있다.”(《뉴욕타임스》, 5월 3일 자)

이 계획에는 하마스는 물론이고 부역자들인 팔레스타인 당국(PA)조차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신생 팔레스타인 국가의 주권도 일절 언급되지 않는다.

외교에 의한 독립 추구 노선은 하마스가 스스로 한발짝 양보하도록 만들 수 있다. 아랍 지배자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PLO가 그랬고, PA가 그렇고, 하마스도 그런 처지에 놓였었다. 하마스는 2011~2013년 집권한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지원을 기대했다. 그러나 2013년 이집트에서 반혁명이 일어나 무슬림형제단이 파괴됐다. 그러자 하마스는 상황에 떠밀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엘시시 독재정권과 협상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하마스는 엘시시 정권이 자신을 대변해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중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이 아랍노동자·빈민의 반란과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연결될 때 팔레스타인 독립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사진 출처: Pamela Drew (블라카)

5월 8일 온라인으로 열린 '캠퍼스 저항을 세
계화하라: 학생, 대학 노동자 국제 회의'에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학생·노동자·활동가
5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연
대 학생그룹 활동가가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5월 15일 '나크바의 날'을
기해 각국에서 국제 공동행동을 벌이자고
호소했다. 한국에서도 이날 오후 3시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
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대학생 국제 행
동의 날 집회가 열린다.
회의 발언 중 일부를 소개한다. 본지 웹사
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전문 보기



사진 출처: Richard Bayfield

레이철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박사과정 대학원생



컬럼비아대학교에서는 제가 속한 학
생 노동자(소속 대학에 조교, 연구원 등
으로 고용된 학생) 노조를 포함해 학생
단체 100개가 속한 연대체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노동자 수백 명은 경찰 병
력 철수와 시위 참가 학생 징계 반대를
걸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핵심 축
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심장
부에 있는 엘리트 기관에 속한 학생 노
동자로서 우리는 행동에 나서지 않으
면 인종 학살의 공범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에 대한 탄압, 학생·교
직원을 겨냥한 사법 공격, 우익의 공격
에도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거를 시작할 때 대(對)이스라
엘 투자 철회 요구가 중요하다고 봤습니
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이를 쟁취하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거라 생각했죠.

지금 우리는 그 생각이 옳았음을 확
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평화 시위를 폭력 탄압한 이유
는 우리가 미국의 기성 정치와 대(對)이
스라엘 지원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캠퍼스에서 학생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대학 당국과 뉴욕시
경입니다. 대학 당국은 살인적이고 폭
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이기로 악명 높은
경찰력을 불러들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우리 동지들이 폭력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과 노동자
들이 함께 조직되는 것은 어디서든 제
국주의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노동쟁의입니다. 노동쟁
의는 이 투쟁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주
요 요소입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
하고 조합원들을 거리 시위에 동원하고
조합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넘어
제대로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조직 노
동자들이 미국 곳곳에 있습니다.

뉴욕시립대학교에서는 노동절을 맞
아 현장 조합원들이 병가를 내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는 채점
거부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뉴스쿨대학
교에서도 파업 호소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학생 노동자
조합원 수만 명이 이번 주에 파업 찬반
투표를 합니다. 대(對)이스라엘 투자
철회가 특히 중요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국제 노동계급의 온전한 연
대,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를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조는 절대로 팔레스타인 문제
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가 캠퍼스에서 조직하면서 관심이 지금
처럼 뜨거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보
와 전술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
고 함께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사진 출처: Joe Pette (블라카)

팔레스타인 연대 학생 운동은 노동자들의 연대도 자극하고 있다

사라 서안지구 비르제이트대학교를 최근에 졸업



저희 학교가 1970년대에 설립된 이
래 이스라엘군은 저희 학교를 15번이
나 폐쇄했습니다. 짧게는 나흘, 길게는
1571일 동안요.

학생들에게 대학교는 단지 정보를
습득하고 시험을 치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자기 인민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사회적 활동도 해야 합
니다.

저의 대학 생활 4년을 통틀어 가장
생생한 기억은 자와드와 타파르의 장
례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두

형제를 라말라 근처에서 사살했고, 우
리는 캠퍼스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인
사를 했습니다.

비르제이트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학생운동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활약하던 1970년
대에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에 제1차 인티파다 분출에 일조했습
니다.

그러나 오슬로협정 체결 후 이스라
엘과 팔레스타인 당국(PA)은 대학교가

오직 공부를 위한 곳이라는 생각을 강
요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점령에 반대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활동가가 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가 전
세계 도덕의 나침반이고 팔레스타인
해방이 여러분의 해방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은 세계 제국주의에 함께 맞서는 투쟁
에서 중요합니다.

에사 미국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지지하는 학생들'(SJP) 전국위원



SJP는 미국 대학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와 행동을 조율하는 일에 함께 왔다.

SJP는 현재 캠퍼스 투쟁이 고조되는 데에 발맞춰 지난 몇 주 동안 '가자 지구 대학교'라는 대중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는 흑인 평등권 운동 당시 '자유 대학' 운동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들이 대(對)이스라엘 투자를 철회하라는 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도하는 경찰의 가혹 행위와

폭력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교들의 정당성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해방의 편에 서는 것을 더 중시합니다.

지금은 투쟁 수위를 높일 때입니다. 또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미국 학생들은 캠퍼스 농성과 점거로 이 과제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종 학살의 공범이 되지 않을 것임을 대학 당국들과 미국 지도자들 모두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크게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루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레스타인청년운동' 활동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점거 농성장은 격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UCLA 학생들이 구축한 힘과 관찰하려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점거가 시작되자마자 시온주의자들이 물려와 학생들을 맹렬하게 공격했죠. 학교 당국은 이를 점거 농성장을 철거할 핑계거리로 삼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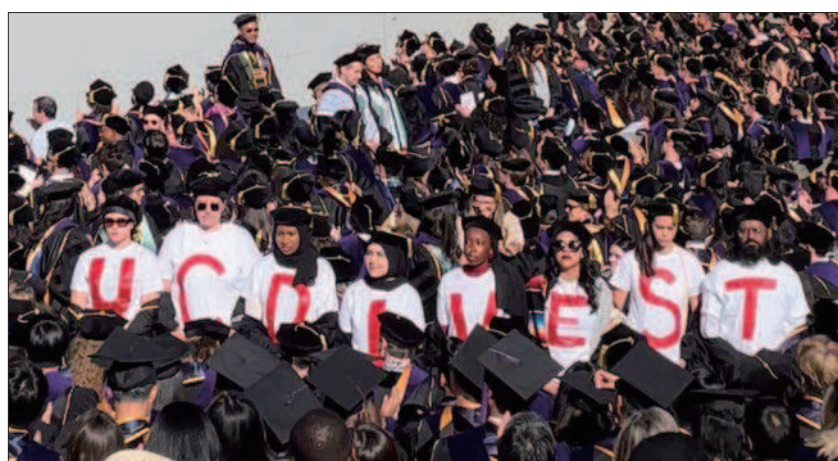
시온주의자들의 이해관계와 (대학 당국이 대변하고 있는)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 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버려 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UCLA 학생들의 투지는 전보다 더 굳건합니다.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은 점거 농성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위력을 키우는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관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UCLA 학생들은 대(對)이스라엘 투자 철회와 팔레스타인 독립 쟁취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면 그런 폭력을 백 번도 더 겪을 결의가 돼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 LA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투지가 넘칩니다.



미국 UC버클리 대학 졸업식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들

이스마일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우리는 10월부터 캠페인을 벌여 왔는데, 몇 주 전에는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탄압이 심했습니다. 사실 학교 당국이 경찰을 부른 것 때문에 점거가 하룻밤도 유지되지 못했어요.

이런 광경은 196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 쟁점에서 그들이 보이는 이중

잣대를 우리 운동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말뿐이고 실상은 탄압이라는 것 말이지요.

우리는 학생들로서 가자지구를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적으로 우리는 대학 당국을 무너뜨리고 있기도 합니다. [대학 당국의 탄압 협조에] 교직원 · 교수들이 반발하면서 분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학교



이날 회의를 발의한 골드스미스대학교 학생들은 최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캠퍼스 점거를 통해 주요 요구들을 쟁취했다.

저희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저희 학교가 도덕적 · 재정적 공범 구실을 하는 것을 규탄하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이자는 전국적 호소에 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쉽게 무시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후 핵심 요구들을 담아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투쟁 수위를 만만하게 높이지 않으면 학교 당국이 이를 들어줄 리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에워쌌습니다. 그러고도 요구가 무시당하자, 우리는 캠퍼스 주요 건물 중 하나를 완전 점거해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 경영진은 우리 요구 모두에 응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수차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보증하는 문서나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받아 내지 못한 채 점거를 풀었습니다. 학교 당국에 이행 책임을 따져 물으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말이지요.

그래서 5월 1일 우리는 학교 도서관 건물에 진입해 추가 회담을 요구하는 점거에 돌입했습니다.

학교 당국은 재빨리 추가 회담을 잡았고, 그 자리에서 요구 이행을 약속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당국은 가자지구의 참상을 규탄하는 새 성명 발표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학교 당국은 [팔레스타인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도 약속했는데, 신설될 장학금 제도 중에는 영국 대학 최초로 만 들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학교 당국은 우리 캠페인에 대응하려고 만들었던 학내 시위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당국은 투자를 재검토하고 대안적 투자 기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대(對)이스라엘 투자 철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파티마 파키스탄 진보학생연합 의장



파키스탄 정부는 대중의 압박 때문에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의미 있는 연대 건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인들은 향후 정부의 대(對)이스라엘 관계 재정상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 시위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즉각 휴전,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해당국 대사 추방, 팔레스타인의 온전한 독립, 국가 차원의 BDS 운동 지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올해로 40년째 학생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조직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에 수천 명 규모의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좌파 정당들의 연합 좌파민주전선도 수십 개 도시에서 전국 동시다발 하루 행동을 벌였습니다.

라호르시(市)에서는 학생들이 국제인권포럼에서 연설한 독일 대사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미국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대학가에서 전국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학 15곳이 동참했고, 다음 주가 되면 35곳 이상으로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거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우리는 10월 7일 이후로 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교에서 교류 행사차 우리 캠퍼스에 왔을 때 쫓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점거 천막 농성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학생들은 싸우고 싶어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주 전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농성장을 공격하려는 시온주의자들에 맞서 우리는 대규모 맞불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활력 있고 광범한 청중을 만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반(反)

제국주의라는 축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예컨대 미국 · 영국 · 호주의 군사 동맹 오키우스(AUKUS) 같은 쟁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대학에는 학생들도 많지만 대규모 일터이기도 합니다. 미국 운동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노동자들이 학생들을 방어하는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호주에서 그런 방향으로 더 전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인 사태는 한·일 간 협력 속에서도 긴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네이버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김문성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양국 간 외교 이슈가 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한일 합작 플랫폼 기업이다. 일본 국민의 80퍼센트인 9600만 명이 이용자로 등록돼 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라인야후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에 밀렸던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이 성공할 기미가 보이자 일본 최대 포털 기업인 야후재팬(소프트뱅크 소유)과 5 대 5 지분으로 합작했다. 현지화 전략의 일환이었다. 네이버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주식 지분이 동등한데도 야후재팬 측이 경영권을 행사해 온 이유다.

그런데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나자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 자체가 아니라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이다. 이는 페이스북이 더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을 때 거액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끝난 것과 대조된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건 라인야후의 빅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인 듯하다. 라인이 수집한 빅데이터는 일본에 있는 서버에 보관되지만, 그 관리는 한국에 있는 네이버 계열사들이 맡고 있다.

데이터 주권?

최근 세계적인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제·안보 모두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 간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빅데이터 확보·관리·통제 경쟁도 중요해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상업적 용도 때문만이 아니다. AI가 결국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귀납추론하는 기술이므로 AI 개발에 빅데이터가 필수 자료다.

일본 정부는 1억 명 가까운 라인 이용자의 다양한 사생활 정보가 담긴 빅데이터의 산업적·안보적 측면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 수억 명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수익용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도 이윤을 위한 공공정보 사유화에 해당하는데, 국가들이 이를 안보용 자산 취급하며 국가 통제 아래 두려는 것도 비민주적이다.

장기 경제 침체와 국제 질서 불안정 속에서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갈등 심화는 첨단기술 경쟁을 격화시키고, 이런 경제적 경쟁은 국가 간 안보 경쟁과 결합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한·일 정부 간 우호 관계 속에서도 이런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보유한 IT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놓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안보 논리를 내세운 선진국들의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와 의회는 올해 3월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SNS 서비스인 틱톡의 경영권을 내년 1월까지 미국 기업에게 넘기지 않으면 틱톡을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법이다.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 7000여만 명이 이용하는데, 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정보 유출이 안보에 해롭다며 국내에서 페이스북(메타) 등 미국 기업들의 SNS를 금지시켰다.

유럽연합은 최근 구글, 메타 등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년 전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는데, 라인 서비스는 이 법에 따른 특별 관리 대상('특정사회기반사업자')으로 지정돼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미·중 갈등과는 달리 상대를 자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보다는 IT 빅테크들에 대한 정부 통제를 늘리는 방식이 벌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라인야후의 파트너 기업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모두 최근 AI 개발에 본격 투자를 개시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가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격 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세청은 한국 쿠팡과 쿠팡 모회사 간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는데, 쿠팡 모회사의 최대 주주는 라인야후의 소프트뱅크다.



격화되는 경제·지정학 경쟁 속에서는 계급투쟁과 반제·반자본주의가 만나야 한다

민족주의로는 노동계급 이익이 희생된다

라인 사태는 이처럼 한·일의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정부·기업간 협력과 치열한 경쟁이 공존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점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격"(<한겨레>)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 침체 속 자본주의적 경쟁 심화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네이버는 지금 일본 정부, 그리고 합작 파트너인 소프트뱅크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가 불리한 처지인 것은 맞지만, 일본 정부와 충돌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한국 정부도 조용히 네이버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라인 관련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맡아 온 네이버 계열사(일부는 라인야후의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

13일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동당 화성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고용 보장을 위해 지분 매각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네이버 노조는 라인의 네이버 지분과 기술을 지켜야 고용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네이버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요구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그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처럼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로 민족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틀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 방문을 예고해 반일 프레임 선동에 앞장서려고 한다.

이런 규정은 계급 협력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내어 고용 보장 투쟁에 필요한 전투성과 의식을 갉아먹는다. 소프트뱅크 노동자든 네이버 노동자든 사용자들에게 맞선 고용 보장 투쟁을 하는 데 도움이 이안 되는 것이다.

앞서 봤듯이 한국 정부는 이미 네이버를 측면 지원하고 있고, 네이버는 한국에서 역대 정부들과 적극 협조하며 포털 시장을 독점해 온 기업이다. 반일 프레임은 이런 정부·네이버와 한 편에 서자는 메시지이다.

지금은 생계 악화 저지 등 사회경제적 요구를 위해 곳곳에서 계급투쟁들이 벌어져야 하는 때다. 물가 인상이 생계비 위기를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 윤석열에 대해 아무리 비판적이어도 민족주의를 앞세우면 이런 과제를 흐리는 효과를 낸다.

게다가 테슬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리는 한편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에서 보듯,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네이버 등 국내 IT 기업들도 사업

▶ 11면으로 이어짐

전공의 파업과 의대 증원 논란

법원 판결이 어떻든 윤석열은
평범한 환자들의 고통 방치할 것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이번 주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대체로 언론은 예측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기존에 밝힌 3개뿐이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 보고서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대학별 정원을 배분한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도 비밀에 부쳐졌다. 정부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되 직책 등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정작 제출한 자료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대학별 실태조사도 부실했던 듯하다. 이런 이유로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올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급 등 서민층 입장에서 이는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내놓은 주요 동기가 무엇이었던 간에 말이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진정한 의료 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 증원 없이 그런 개혁이 이뤄질 수는 없다. 의료 복지에 관한 한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해 증원이 이뤄진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이 나라들보다 의사 수가 훨씬 부족하다.

현재 맥락상 정부의 패소는 의료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기대하지 않는 이들조차 증원 규모 축소 등 어설픈 절충을 지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대로 정부가 승소한다고 해도 상황이 나아질 리 없다. 전공의들이 판

결에 승복해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부가 대학병원의 의료 공백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 사직과 휴학으로 의사 배출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처할 수단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가릴 것 없이 의료와 의료인 양성을 시장에 내맡겨 온 결과다.

석 달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국취장암환우회가 현재 치료 중인 30~80대 취장암 환자·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상 진료를 받은 취장암 환자는 10명 중 3~4명 수준에 그쳤다. 취장암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급속히 악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공포의 5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중증, 응급 환자들은 자질이 없다는 발표와는 달리 공포의 5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들의 고통에 조급치도 관심이 없다.

오히려 전공의들을 압박하겠다고 이들의 고통을 가중할 조처를 내놓고 있다.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이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 어렵게 만드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본인 부담을 올리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하는 절차도 까다롭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병원의 현재 진료 공백 상태를 ‘정상’으로 여기겠다는 식이다.

전공의들을 의원에서 수련하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놨다가 엄청난 반발이 일자 주워 담는 일도 있었다.

노동계급의 일부라는 말의
정치적 의미

그럼에도 좌파는 의사 전체를 싸잡아 구제불능의 집단으로 여기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그런 관점은 팔짱 끼고 불평이나 늘어놓는 쓸모없는 태도를 낳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좌파는 막연하게나마 전공의들이 노동자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전략 문제로까지 일관되게 발전시키는 좌파는 드물다.

예컨대 최근 발행을 재개한 좌파 언론 〈참세상〉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건 의료단체연합 측 참석자는 전공의들이 노동자라면서도, 그들의 의식이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중요성이나 변화 가능성을 간단히 기각해 버렸다.

그는 첫째, 노동자들이 ‘보수적’ 의식을 갖고 있어도 객관적 조건 때문에 투쟁에 나선다는 점, 둘째 때로는 ‘보수적’ 의식이 현실에 의해 배반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투쟁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점, 셋째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 자신의 의식도 변화된다는 점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또, 그는 지금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와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려 한다는 점도 보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반발에는 “즉자적” 불만뿐 아니라 계급적 차이에서 비롯한 의사협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전공의들은

2020년 파업 당시 의사협회가 제 잇속만 챙기고 전공의들의 조건 개선 요구를 외면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대표가 공개적으로 의사협회를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이 전공의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을 노동계급의 일부로 여긴다는 것은 좌파가 전공의들의 주관적 의식보다 그들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진정한 개혁을 이를 아래로부터의 힘 말이다.

비록 전공의들의 요구(의대 증원 반대)가 부적절했을지라도 윤석열 정부의 시장경제 식 개혁 추진에 맞설 힘을 보여 준 것은 전공의들뿐이었다. 반면, 윤석열의 의료 시장화 정책에 반대해 온 개혁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연대체는 기자회견이나 지도부 농성 이상의 행동을 조직하지 못했다.

좌파는 노동자들의 의식 발전이 때로 매우 더디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이에 불평만 늘어놓기보다 (작더라도) 그들의 변화 가능성을 보며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입하려 해야 한다.

보건 의료단체연합 참석자의 관점에서 이런 태도가 보이지 않고 비판과 꾸밈만 느껴진다. 이런 태도는 불모의 것이다.

▶ 10면에서 이어짐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할 수 있다. 사업 구조조정에는 고용 조정, 즉 노동자 해고와 ‘유연화’가 뒤따른다.

그런데 진보당이 반일 민족주의에

합류한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심지어 진보당은 일본 정부의 행동이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라는 우파 기업인 안철수의 말을 인용하며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진보

당은 이 논평에서 네이버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총선에서 네이버 노조가 소속된 화성노조의 지지를 받았던 정의당도 현재(5월 14일) 네이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격화되는 경제·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를 지키는 일에서 계급투쟁의 정치가 중요하다.

‘검수완박’ 시즌 2 — 유사 개혁

4월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5월 말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검찰개혁 공조를 하려고 한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과 총선 선거연합을 했던 진보당의 1번 공약도 검찰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는 내용의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좁혀, 선거법 위반이나 공직자 범죄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미완의)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를 ‘검수완박 시즌 2’로 삼고, 올해 안에 법을 고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공상적

검찰은 그 자신이 부정부패로 썩은 주제에 막강한 사법 권한을 휘두르며 서민층 대중 위에 군림하는 억압적인 기관이다. 검찰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정당하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중 사이에서 흔하다.

기존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 그 억압적인 성격을 약화시킨다는 민주당의 구상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과연 ‘검수완박’이 그런 개혁이 될 수 있을까?

우선, 기소권을 가진(독점) 검사를 수사(지휘)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내려는 공소권자(기소권을 보유한 검사)가 일선 수사관에 대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쪽이나 그것이 박탈되면 큰일 난다는 쪽의 대립은 상당히 허구적인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는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자본주의 체제의 기성 질서를 수호하려는 권력 기구이고,



올해 안에 검수완박을 완수하겠다는 공조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법 기관은 그 핵심적 일부다. 강제 수사, 기소, 재판과 처벌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정한 질서를 대중에게 강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억압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한,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기능의 억압적 성격은 다른 어떤 명칭의 기관이 수행하든지 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기관이 검찰의 권한을 나눠 가질지라도, 이 기관들은 (때때로 서로 일부 경쟁을 벌일지라도) 사회 질서를 통제하고 저항을 억압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일치단결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공수처 같은 ‘검찰 2’를 만들거나 검찰 못지 않게 억압적이고 부패한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것(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국가의 독점적 강제력인 수사권·기소권의 총량은 줄지 않고, 악행도 줄지 않는다.

2021년 기존 검찰의 대안을 표방하며 출범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조 교육감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부당한 탄압에 의해 해직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이 감사원에 고발당한 사건)을 다뤘지만, 결국 기소 입장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 권한을 약화시키고 공수처를 설치했음에도 대장동 수사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윤석열과 검찰의 근거 없고 부당한 공세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력 견제를 명분으로 수사 권한과 규모를 키워 준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손발이 돼 있다. 집회·시위 탄압, 국가보안법 탄압, 언론 탄압,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등에서 경찰은 검찰이나 국정원과 한통속이었다.

민주당이 막강한 검찰 수사권을 정말 해롭게 여긴다면, 그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의 권리(사법 절차상 방어권)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반민주적 악법을 폐지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찬성파도, 반대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제도적 문제만 논할 뿐, 이러한 피의자 권리 신장에는 무관심하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힘 못지않게 집회·시위 권리 개악 법안들을 발의했다.(관련 기사: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이는 민주당도 이 나라의 기업주와 권력자들의 선택을 받고 싶어 하는 친 자본주의 정당이고, 사회·경제적 위기가 깊은 상황에서 서민층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공상일

뿐더러, 서민층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개혁’, 실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개혁 염원 헛된 데 돌리기

검찰 문제를 둘러싼 주류 양당 간 싸움의 진정한 이해관계는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 등 주요 국가적 사건들을 수사·기소하는 검찰 권력이 주류 양당 간 권력 투쟁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검찰은 대대로 “산 권력의 사냥개” 구실을 해 왔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야당일 때나 레임덕으로 몰린 수사에 몰릴 때 ‘정치 검찰’을 규탄하곤 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수사를 할 때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이 문재인 측근들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했다.(그런 사안 중에는 이재명에 대한 근거 없는 공세도 있었지만,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라임·유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 등 마땅히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패 문제도 있었다.)

민주당이 핏대를 세우며 정부·여당과 충돌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검수완박 입법 시도는 대중의 개혁 염원 압력을, 특히 생계비 고통에 신음하는 노동자 등 서민층의 불만을 헛된 곳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의 문제들은 주류 여야가 외면하거나 민주당이 쉽게 누더기로 타협하는 사안들에 있다.

김승주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6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전국삼성전자노조 2차 집회 예고

삼성전자 노동조합 인정하라

형편없는 성과급 대폭 인상하라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전국삼성전자노조)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1만 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3배 가까이 늘어 현재 2만 8000명이 넘었다(전체 직원의 23.5퍼센트).

지난 4월 17일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창사 55년 만에 첫 단체행동을 성공적으로 벌였다.(관련 기사: 본지 502호 '성공적이었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첫 단체행동: 총선 결과 활용해 자신 있게 투쟁에 나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반도체와 TV, 가전, 스마트폰 등을 개발·제조·판매하는 일을 한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치고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 전체 노동운동에도 뜻깊은 이유다.

삼성전자노조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반도체 부문의 위기와 그에 따른 고통 전가, 사측의 노조 무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있다.

사측은 지난해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초과이익성과급을 “0원” 지급했다. 올해도 형편없는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초과이익성과급은 목표 실적의 초과분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자 연봉의 최대 50퍼센트까지 지급된다. 노동자가 받는 총 임금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임금체계는 낮은 기본급을 성과급으로 보전하는 구조라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임금 상실은 상당하다.

보너스

한 삼성전자 13년 차 노동자는 <노동자 연대>에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보너스(성과급) 비중이 높아서 다른 계열사에 비해 연봉이 낮아요. 그런데 올해 회사가 1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성과급이 연봉의 4퍼센트 이하로 예상된다고 공지했어요. 왜 4퍼센트 인지는 회사 기밀이라며 산정 방식을 밝히지 않아요. 회사에 돈 벌여 주는 ‘캐시 카우’ 역할을 하는데도 막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건 얼마 없어요.”

지난해부터 “30년 메모리 1위”라는 삼



성공적이었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첫 단체행동 4월 17일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DSR) 앞

성전자 반도체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다. 2위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줄고 있고, 최근 인공지능(AI) 붐으로 수요가 늘어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의 주도권도 SK하이닉스에게 내줬다. 사측은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과주의가 메인 철학이에요. 성과 내면 확실하게 보상하고 성과가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과가 안 좋은 책임을 일반 직원들만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임원들은 성과가 없어도 하나도 잘리지 않아요. 사실 지난해 임원 3분의 1은 잘릴 줄 알았거든요. 직원들 연봉 깎이는 와중에도 임원들은 지난해 3분기에 3000억 원 가까운 장기성과급을 받아 챙겼죠.

“반면, 열심히 야근하고 점심에 운동한 직원들한테 회사가 ‘근(뮈)태(도) 부정’을 소명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심지어 직원들끼리 서로 감시해서 고자질하게 하는 ‘근태 부정 신고제’까지 지난해 말에 도입했어요. 정말 다들 너무 짭뽕했어요.

“반도체는 원래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 서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버티면 잘될 거야’라는 희망도 없어요. 개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들 해요. 거기엔 임원진의 잘못된 의사결정 탓이 커요.”

사측이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노조와 임금 협상 중에 사측 교섭 대표가 노조 간부에게 욕설을

내뱉는 일이 있었다.

“일반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쌍욕을 했다면 회사가 징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일에 회사가 항상 조치를 취해 왔거든요. 그런데 전혀 징계를 받지 않는 일을 보고서 회사가 노조에는 뭐가 그래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노조에 힘을 실어 주려고 저도 가입했어요.”

또, 사측은 노조와 임금 협상 중에도 3월 31일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을 결정해 공지했다(5.1퍼센트 인상). 노조가 이에 항의해 단체행동(집회)을 예고하자, 하루 전날 집회 장소에 화단을 설치했다.

“원래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 인상

협의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데 최근에 노조 가입률이 엄청 올라가니까 그걸 끊으려고 이번에 임금 인상을 빨리 통보한 거죠.

“지금 많은 직원들이 연봉 사인을 안 했어요. 저도요. 회사가 고지한 임금 인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삼성전자노조는 5월 24일(금)에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2차 단체행동(집회)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노조 집행부가 전국사업장을 돌며 조직하고 있다. 이날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1달에 1번 모두 쉬는 ‘패밀리데이’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발전하길 응원한다.

성지현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1



서평 |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수전 니먼 지음, 홍기빈 옮김, 생각의힘, 296쪽, 19,000원

차별받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중도좌파

최근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이하 《워크》)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수전 니먼이라는 미국의 도덕철학자이자 문화평론가가 썼다. 저자는 이 책을 “철학서”로 소개했다. 칸트 계몽주의의 입장에서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코를 비판한다. ‘워크’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칸트도 물자체(본질)를 인식할 수 없다는 회의론적 주장도 뚫기 때문에 두 사상이 상극인 것만은 아니다. 칸트는 보수나 우파적 인물은 전혀 아니고, 그가 한 말인 “인간을 한낱 수단 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소외론에서 볼때 감동적인 말이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칸트 철학 논의에 집중하지 않고, 워크 비판자들의 정치를 주로 다뤘다.

이 책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옮겼다. 장석준 정의당 정책연구소 전 소장은 추천사를 썼다. 그는 이 책을 “길 잃은 21세기 좌파에게 베풀 같은 깨침의 선물”이며 “세상을 바꾸는 운동의 재출발을 열망하며 고뇌하는 이들의 필독서”라고 평했다. 역자와 추천인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 “철학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워크(Woke, 의식 있음)’는 차별과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한 각성을 뜻하는데, ‘정치적 올바름’과 엇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인다.

최근 트럼프는 재선하면 “너무 의식 있는(too woke)” 학교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티센티스는 이미 플로리다 내 주립대학교들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수업을 금지하는 ‘워크 방지법(Stop Woke Act)’을 제정한 바 있다(위헌 판결로 시행 중지됐다).

우익의 공격에 맞서 좌파는 워크를 방어해야 한다.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의식 있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고, 여성·성소수자 차별 연사를 함부로 내뱉지 못하는 문화는 억압이긴커녕 권장돼야 할 일이다.

물론 워크의 방법으로 알려진 것 중에는 비효과적이거나 때로 역효과를 불러오는 것들이 있다.



“우리의 시체에만 연대하고 우리의 로켓포와 연대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위선자다”(런던)

가령 차별적 혐의·의도가 없는 말일지라도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 응징하기, 문제적 주장(이견일 수도 있다)을 한 인물·단체를 (범좌파에 속하는데도) 캔슬하기, 피해자 말에 대한 확증편향, 배타적 정체성 정치(이 책에서 “부족주의”라고 부르는 것) 등.

특히, 워크가 특정 표현이나 주장을 두고 토론과 논쟁이 아니라 행정적 규제·검열 도입을 지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파와 억압적 국가기구에 이용당할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가령 많은 나라의 혐오표현금지법은 이스라엘 비판과 같은 정당한 주장까지도 유대인 혐오로 몰아 탄압한다.)

《워크》의 저자도 트럼프, 모디, 네타냐후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은 엄중한 역사적 시점이다. 무엇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보주의자들끼리 서로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

은 없다.”

이런 문제는 미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지만, 이제는 상당히 국제적인 현상이 됐고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워크 비판

워크 열기가 한숨 가라앉은 후 최근엔 진보 진영 내에서도 워크의 과도함에 대한 일정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중도좌파나 자유주의 경향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근래 출간된 책들, 《정치적 올바름: 한국의 문화 전쟁》(강준만, 2022),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이토 마사아키, 2023), 《잘못된 단어 -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르네 피스터, 2024)도 그런 경유다.

각각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은 워크의 도덕주의가 사람



들의 반감을 사고 운동을 분열시켜 트럼프와 같은 우익의 부상에 일조한다고 보고 이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홍기빈 소장은 《워크》 북토크에서 지인인 벨기에 저술가가 SNS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캔슬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워크의 해악이 한국에서는 아직 심각하지 않지만 “방역”을 위해서 이 책을 번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기빈 소장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한국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다. 특히, 민주노총 중앙 관료들이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피해호소인 측의 비방을 반박하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공동 진상조사를 제안한 것을 두고 ‘성폭력 2차가해’라며 연대 단절을 선언하고, 얼마 전 세계 노동절 집회 때 사회자가 <노동자 연대>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다.(물론 조합원 상당수가 그럼에도 <노동자 연대> 신문을 구입했다.)

그러나 중도좌파의 관점에서의 워크 비판은 중요한 한계가 있다.

그들은 워크의 과도함을 비판하면서 워크에 함축된 정당한 합리적 핵심마저 반대한다.

예컨대 저자 니먼은 ‘흑인목숨도소중하다(BLM)’ 운동이 내세운 경찰 예산 삭감 요구를 비판한다. 하지만 그 요구는 가난한 사람들과 흑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잔혹한 폭력을 일삼는 경찰의 재정을 대폭 삭감해 독소를 제약해야 한다는 것으로, 취지가 정당하다.

저자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하마스 방어를 워크로 치부하는 것도 옳지

우리의 기본 입장 ②

노동계급이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계급인 이유

오늘날 노동계급은 그 어느 때보다 거
대하고 강력한 잠재력이 있다. 권력자
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권력자들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카를 마르크스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
기를 바란다.

기업주들이 상점 · 콜센터 · 공장 · 기
계를 소유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모두 노
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자본주의
는 이윤에 의존하는 체제인데 이윤은 자
본가들이 노동이 생산하는 가치만큼 노
동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
게 지불하지 않은 ‘잉여가치’를 자기 몫
으로 챙긴다. 이론상 기업주들은 노동자
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만 지불한다. 이런 강도질
을 사회주의자들은 착취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착취로만 규정
되는 사회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규
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경쟁이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끝없이 경쟁한다. 경쟁 물이는 어느 누
구도 진정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체제를
만들어낸다.

이 체제는 위기와 불안정에 빠지기 십
상이다. 이 체제는 사람들의 필요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이 체제는
전쟁 · 기후변화 · 차별 등 오늘날 평범
한 사람들이 직면해 있고 서로 맞물려
있는 모든 위기를 추동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그토록 커다란
고통을 주는 조건들이 도리어 그런 고통
을 낳는 체제를 투쟁으로 무너뜨릴 잠재
력을 만들어 낸다.

기업주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동
자들을 대도시로 밀집시킨다.

그리고 기업주들은 이윤을 늘리려고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한다. 그 결과 노
동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반격할 수단을
많이 갖게 됐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노동
조합을 만들고, 기업주들에 반격할 능력
을 갖고 있어 왔다. 역사상 다른 어느 피
착취 계급도 노동계급 만큼 사회를 접수
해서 운영할 잠재력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집단 행동을 통해
서만 이런 변화를 쟁취할 수 있다. 과거
농노들은 지주의 땅을 나눠 가질 수 있
었지만, 노동자들의 경우 공장이나 대형
마트를 그런 식으로 나눠 갖는 것은 꿈
도 못 꿀 일이다.

노동자 개인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쉽게 보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터의 노동자 모두가
함께 파업하면 노동자들은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착취 때문에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행
동할 수밖에 없고, 단결해서 싸울 잠재력을
갖게 된다. 노동자는 착취당할 때나 해방을
쟁취할 때나 집단적인 계급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분쇄
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라고 본다. 사회주의 사회
의 모습에 관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첫째, 사회주의에서는 실제로 사회가
굴러가도록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사회
의 조직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둘
째, 그런 사회는 이윤 창출이 아니라 인류
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굴러갈 것이다.

이런 사회를 쟁취하려면 전 세계의 수
많은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 노동자들은 노동
자 혁명으로만 “시대의 오물을 털어 내
고 새 사회에 걸맞게 거듭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의회나 게릴라 투
쟁을 통해 위로부터 도입될 수 없다고
본다. 훌륭한 좌파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고 해도 사회주의를 도입할 수 없는 것
은 마찬가지다.

이오시프 스탈린 치하의 옛 소련은 관
료들이 생산수단을 장악한 국가자본주의
체제였다. 스탈린은 이를 사회주의라고
불렀지만 노동자들은 통제권이 없었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사회
주의는 오직 아래로부터 노동계급 스스
로에 의해 쟁취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
의 계급으로서 행동할 때 자본주의 체제
의 참상을 끝장낼 수 있다. 마르크스가
주장했듯 노동자들은 “대자적 계급”이
돼야 한다.

이것이 파업을 지지하고, 파업 파괴에
함께 맞서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토록 중
요한 이유이다.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
들은 자신감을 쌓고, 자신의 삶과 운명
을 통제할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두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
에서는 사회주의가 어떤 사회일지에 관
해 다룰 것이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
재의 두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사회주
의가 어떤 사회일지**에 관해 다룰 것이다.

않다. 하마스에 대해서는 홍기빈 소
장과 장석준 씨도 저자와 같은 입장
이다. 최근 장석준 씨는 〈프레스리안〉
에 미국 대학 캠퍼스 점거가 제2기
트럼프의 등장 가능성을 높이는 일
이라고 터무니없이 썼다.

하마스의 무장 투쟁은 이스라엘
식민 지배 체제를 물리치는 데서 불
가피하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인종
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에, 칸트식 정
언명령적 평화주의는 완전히 무력
할 뿐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는 반동
적일 수 있다.

현재 벌어지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영감을 주는 이유는, 그
운동 참가자 다수가 그저 ‘국제 사회’
의 중재에 기대거나 팔레스타인인
들을 동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팔레
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적극 지지하
는 급진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기빈 소장은 북토크에서 심지어
“워크는 파시즘”이라며 한국의 워크
의 한 사례로 남성 일반과 난민을 배
척하는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를 지
목했다. 물론 남성과 난민을 혐오하
는 분리주의 페미니즘의 정치와 전
략은 문제다. 하지만 이들이 2018년
에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여성운
동(불법촬영 항의 운동)을 이끌며 문
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과 위선을 예
리하게 폭로했음에 비춰 볼 때 파시
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
다.

오늘날 워크 운동은 좌우를 넘나
들고 혼란스럽지만, 무능한 중도와
이들이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치체
제(그 “국제 질서”도)에 대한 반감이
자 항의의 측면도 있음을 봐야 한다.

인민전선 즉 좌파와 자유주의
세력의 연합

타리크 알리가 말한 “극단적 중도”
(대표적 인물로 버락 오바마, 조 바
이든, 토니 블레어, 앙겔라 메르켈,
에마뉘엘 마크롱, 한국의 문재인)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지킴으로써 대
중의 삶을 악화시켰다. 바로 이로 인
한 불만과 고통, 혼란, 환멸을 먹고

오늘날 극우가 자랐다. 워크 때문에
극우가 성장한 게 아니다.

저자는 극우와 파시즘에 맞서 바
로 이 “극단적 중도”와 전략적 동맹
을 추구하는 “인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책을 마무리한다. 홍기빈 소
장과 장석준 씨도 북토크에서 인민
전선을 옹호했다.

이들이 워크의 대안으로 삼는 “보
편주의”(인권, 정의, 진보)는 결국 극
우와 급진좌파를 모두 반대하는 중
도우파와 중도좌파의 연합을 의미
할 뿐이다.

그래서 “워크는 좌파가 아니”라거
나 나아가 “워크는 파시즘”(홍기빈)
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
라, “극단적 중도”와 그를 추수한 일
부 좌파의 책임을 엉뚱한 데로 전가
하는 것이다.

장석준 씨는 북토크에서 정의당
내 일부 페미니스트가 워크 요소를
가졌음을 인정하며 특히 이들의 “센
세이셔널리즘” 때문에 정의당이 “발
전적 대중 정치 정당이 되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정의당 페미니즘을 대표했던 류호
정 전 의원, 장혜영 의원 등은 미투
지지와 정치적 올바름, 피해자 중심
주의에 균형이 안 맞게 경도돼 자주
도덕주의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것
은 분명 정의당이 가진 문제의 일부
였다.

이 문제가 가장 뜨거웠을 때 장석
준 씨를 포함한 정의당 좌파들의 유
의미하거나 적절한 비판은 없었다.

그러나 정의당의 실패는 이 문제
로 축소될 수는 없다. 정의당 지도부
는 문제인 정부 집권 전반부의 3분
의 2를 문제인 정부를 (전략적으로)
지지해 개혁을 성취하려는 노선에
매진했고, 그 뒤에도 소심하고 온건
하게 행동했다.

무엇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
정학적 위기와 경제 불황 등에서 파
생된 많은 첨예한 쟁점에서 위기의
깊이에 걸맞은 급진적 대안을 제시
하기를 회피함으로써, 좌파 일반의
정치 발전에 일조하지 못했다.

성지현



서울대 학생들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농성의 물꼬를 트다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가 미국을 넘어 여러 나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연좌 농성이 시작됐다.

5월 8일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관악캠퍼스 자하연 앞에 농성 텐트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내걸고 보도블록에 팔레스타인 저항을 상징하는 수박 그림을 그리는 등 농성장을 다채롭게 꾸몄다.

학생들은 억압에 맞서 저항한 선배들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팔레스타인 저항의 상징인 쿠피아(케피예)를 박종철 열사 동상에 두르기도 했다.

텐트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학생들이 "Curious about Palestine? 팔레스타인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쓰인 팻말을 보고 농성장에 다가왔다. 대화를 나누다 농성에 합류한 학생도 있었다.

메모지에 팔레스타인 연대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학생, 응원의 의미로 과자를 선물한 학생 등 지지와 응원이 잇달았다.

대학노조 서울대학교지부 조합원들도 지지 방문을 왔다.

오후에 농성장 옆에서 집회가 열렸다. '수박'에서 활동하는 이시현 씨는 농성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지금 100곳 넘는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점거, 연좌, 시위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종 학살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독립! 대학 당국이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관계 기업들과 연계를 끊으라!"

"'수박'은 [한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건설된 팔레스타인 관련 동아리로서, 국립 대학인 서울대학교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인 유학생 주마나 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대학생들은 팔레스타인인 학살의 공범 구실을 하는 자기 대학 당국에 맞서 캠퍼스 점거를



텐트 농성장은 서울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의 초점이 돼 있다

벌였습니다. 컬럼비아대학교, MIT, 하버드대학교, UCLA뿐 아니라 프랑스의 시앙스포 등 다른 나라 대학생들도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세계 곳곳의 대학생들에게 연대합니다. 특히 학교가 파괴된 가자지구의 학생들에게 연대합니다.

"학생들의 반란은 역사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야만적인 테러리스트 점령 국가 이스라엘에게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멈추지도 쉬지도 않을 것입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함께 대화하고 점심을 먹으며 연좌 농성을 이어 갔다.

캠퍼스를 오가는 많은 학생들이 농성장에 들러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대를 다졌다.

농성 재개

8일 농성을 마쳤던 학생들은 5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텐트 농성을 재개했다. 또한 이번 주를 팔레스타인 연대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3일 농성장에는 종일 여러 국적의 학

생들부터 대학원생, 교직원까지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아침부터 농성장을 지키던 '수박'의 동아리원 도노 씨는 농성을 재개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지난주 농성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응원과 관심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더 잘 알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농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고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 한국에서도 다른 대학들로 텐트 농성이 퍼지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느껴요."

한 음악대학 학생이 농성장에 와 주마나 씨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A 교수의 행동을 다수의 음악학과 학생들은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인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는 지난 2월 학내에 부착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포스터를 훼손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주마나 씨는 팔레스타인 주간을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의 방문과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주 내내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문화에 관한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먼저 화요일(14일) 오후 5시에는 서울대 안에서 집회와 행진이 열립니다.

"수요일에는 '나크바 76년 5.15 대학생 국제 행동의 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파르하>라는 영화 상영회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크바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영화입니다.

"금요일에는 팔레스타인 음식을 만들어서 모두 함께 나눠 먹을 거예요. 저는 음식이 사람들을 한데 모이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성장에 오면 팔레스타인에 관한 책도 읽을 수 있고, 함께 배너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재개된 텐트 농성은 서울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의 거점 구실을 하고 있다.

이재혁·오수민

※ 다른 대학의 농성·시위 소식은 2~3면을 보시오.